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나서

군산시, 인명피해 전무 · 재산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수립

군산시는 2020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사전 대비하고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5일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전망이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이 잠재되어있으며 강수량과 적설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거나 서해안과 제주도에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위험이 잠재되어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지난 24일 신현승부시장을 주재로 17개 협업부서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보고회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행정안전부 코로나 지침에 따라 대면회의는 취소되고 각 협업부서의 세부 대응계획을 취합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서 협업 부서에서는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세부 대응계획을 제시했으며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응을 위한 각 부서의 다양한 방안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한달 앞선 재난대비 및 실행계획 정착을 통한 인명피해 전무, 재산피해 최소화대책을 기본방침으로 한파 영항예보 정규서비스 등을 활용 기상정보,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반복점검 및 지속점검을 할 계획이며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위험요소 발견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설대비 제설추진 계획은 추진기간 4개월(2020. 11. 15. ~ 21. 3. 15.) 동안 관내도로 985.38km를 제설장비 38대(살포기, 제설기, 백호우)등을 활용에 관리할 예정이며, 친환경제설

제(190톤), 염화칼슘(349톤), 소금(2,539톤) 등 확보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기상악화(폭설 등)에는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통해 버스 이용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

적설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적설 취약구조물 8개소, PGB건축물 9동, 아차관발지붕 2동은 수시점검 및 기상상황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을 통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올 겨울은 코로나에 대응해 노숙인 보호시설 방역 및 입소자 모니터링에도 철저를 기해 재난에 차질없는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현승 부시장은 관련 업무 부서장에게 철저한 사전 대비와 준비를 주문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소방서는 25일 화재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상당중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교직원 · 학생 초기 화재 대응능력 길러

익산소방서, 상당중학교서 비대면 합동소방훈련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5일 화재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상당중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 대상으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로 대면 훈련이 어려움에 따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각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훈련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안전지침에 따라 훈련 진행 시 소방안전교육 영상 시청으로 간접 체험식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마스크 착용, 사전 발열체크, 2m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환경 속에서 이뤄진 이번 훈련내용으로는 ▲학교 내 화재 발생시 화재 상황 전파 ▲피난요령 및 완강기 사용요령 ▲자체소방시설 활용 초기진화 ▲심폐소생술 및 자

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처치요령 등 신속한 화재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응급상황에 따른 자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끝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미래 소방관 진로 설계를 위한 직업 소개, 소방관 업무, 직업 멘토링 수업 등 학생들에게 미래 소방관을 꿈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 확산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화재 등 재난에 대해 자칫 소홀할 수 있어 비대면 소방훈련을 확대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초기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특산물 브랜드 '탐마루' 지원 확대

주요 품목 육성 · 품질관리 강화 ...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운영

익산시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탐마루를 통한 농가의 소득 향상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7월 업체를 대상으로 상표 사용 신청 접수를 받아 총 5곳에 신규 인증(농회사법인 라라스팜 등 5개소)을 하는 등 총 29개 경영체 37개 품목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해 우수 경영체를 확대했다.

시는 2021년부터 탐마루 주요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운영, 가공 경

영체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 지원 등에 나선다.

탐마루 인증품목 중 매출액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상추, 고구마, 쌀 등)은 집중 육성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한다.

또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 자율적인 품질관리에 나서도록 한다.

특히 수시로 탐마루 인증 제품을 수

거해 잔류농약 검사(320종 이상), 쌀 유전자(DNA) 검사, 대장균 검사 등을 전개해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 콩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탐마루 경영체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해 사용량을 확대하고 두류 가공품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에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65세이상 어르신들 결핵검진 꼭 받으세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1년에 1회이상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25일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로 인해 공기 중에 퍼져있던 결핵균이 몸속으로 들어가 호흡기나 폐를 감염시키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흉통·피로감·식욕감퇴·체중감소·기침·가래 등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결핵 환자 비중은 지난 2001년 19.2%였던 것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45.2%를 기록했다. 군산시의 경우도 2019년 결핵 신환자의 54%가 65세이상으로 높은 발병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결핵은 '결핵의 특징인 기침이 아닌 호흡곤란과 흉부X선 검사 소견이 폐렴 형태라는 점이 특징' 이어서 환자 본인이나 주변인들이 결핵을 의심하지 못하는 바람에 뒤늦게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호흡

기로 감염되는 질환이므로 결핵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해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에티켓을 실천할것이 강조된다. 또한 2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실제 걸리더라도 결핵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어도 1년 1회 결핵검진을 받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 간호학과 조혜영 교수, 우수 심사위원 선정

2020년 한국간호과학회 총회

군산대학교 간호학과 조혜영 교수가 2020년 한국간호과학회 총회에서 JKAN(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우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매년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심사위원을 선발하여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번의 수상은 지난해 2019년 수상에 이은 연속 수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에 창설되어 현재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5,400명의 간호학자들이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간호학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연구단체이다.

특히 한국간호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간호과학회지는 국제전문학술지(SCI & SCJ)로 매년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간호학자들이 최신지견의 간호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곳이다.

조혜영 교수는 성인간호학과 응급간호학 전공교

수로서 보건교과교육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산하여 안전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본소생술, 한국전문소생술, 전문심장소생술 강사로서 군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기본심폐소생술 및 한국전문소생술 과정을 매년 개최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공자력증 교육에 매진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역량을 펼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20대 코로나 확진 18일이후 총 45명 발생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북 193명 확진자의 접촉자인 20대 1명이 감염됐다.

감염자는 지난 20일 전북 194명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 몸살기운과 고열 증상을 보여 24일 검체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감염자는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핸드폰 GIS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와 함께 추가 동선 확인 시 방역 소독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익산지역에서는 지난 18일 이후 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강남호 교수, 군발위 전문위원 위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경영대학 경제학부 강남호 교수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산업·일자리 전문위원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위촉됐다.

임기 1년의 지역산업·일자리 전문위원은 지역산업 육성, 지방투자촉진 방안 수립, 산업단지 혁신성장 거점화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과학기술 진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검토·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강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위원, 농촌진흥청정책연구심의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예산심의위원, 국회사무직8급경제학문제확정위원, 전북도지역혁신협의회위원, 전북도대학지원사업평가위원, 전북도대학지원사업평가위원, 전문심장소생술 강사로서 군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기본심폐소생술 및 한국전문소생술 과정을 매년 개최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공자력증 교육에 매진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